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9호 [루계 제23041호] 주제99 (2010)년 3월 30일 (화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월 29일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류홍재를 접견하시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새로 부임되어온 류홍재 특명전권대사를 환영하시고 그와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영춘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만찬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나라에 보도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4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러오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 미동동동장 현지지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세해영농 전투에 진입한 사리원시 3종 3대 혁명붉은미국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새로 개건된 혁명사적판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시련 사적자료들을 보시며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에 의하여 미곡미을이 풍년나락 설레이는 행복한 인민의 랙원으로 전변되었다고 하시면서 주석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기간 농장이 더욱한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이어 농장에서 새로 건설한 우탱이양식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려 농장들의 실천적경험은 우탱이에 의한 비례관리가 많은 로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논벼 소출을 높일수 있는 우월한 방법이라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이날 알곡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작업반장들과 분조장을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려 농장들의 실천적경험은 우탱이에 의한 비례관리가 많은 로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논벼 소출을 높일수 있는 우월한 방법이라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반포전에 나가시여 찬바람부는 두루길을 걸으으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표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장들을

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창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널리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농산제1작업

인민을 등진 반역 《정권》에는 앞날이 없다

남조선에서 《실용》의 간판을 내건 보수 《정권》이 등장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

이 기간 남조선보수 《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로 향한 시대의 흐름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역행하여 나라와 민족앞에 천추에 엊울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전례없이 악랄한 외세의 존, 파쑈독재, 반공국제결책 등으로 남조선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망쳐먹었으며 북남관계를 평화시키고 조선반도 정세를 국도로 결행시키면서 전쟁위험을 절제 물어온 지난 2년간의 행적을 통하여 보수 《정권》은 날마다 드러났다.

사대국과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실용정권》의 대내외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하였으며 그로 하여 보수 《정권》은 시장위기에서 처하였다. 보수 《정권》은 미주와 규탄, 타도의 표적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하여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보수 《정권》은 전례없이 악랄한 미국반통치로 외세에 의한 남조선사회의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남인민들이 폐허를 치우며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열매마저 깨트리면서 좋게 밟았던 북남관계를 전면파괴시켰다. 그들이 미주주통일 대장인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반통일대결정책을 한시고 고집하면서 자주통일의 앞길을 갈수록 큰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면치 못하는 죄악이다. 파거의 독재체제를 되살려 세정치, 세제도, 세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짓뭉개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는 보수 《정권》은 남조선각계총의 분노와 원한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총 진보세력들속에 《실용독재정권》을 실관할때 대한민국의 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광범한 인민들의 반 《정부》 투쟁진출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적표현이다.

외없이 수치스러운 파멸을 당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거족적인 4·19 민민봉기로 의해 퇴승만 《정권》이 허물어졌고 10월민주항쟁의 거세한 불길에 휩싸여 악명높은 《유신》파쑈왕이 종말을 고하였다. 6월민주항쟁으로 《5·15》 군부독재가 밀려나고 남조선전지역을 휘젓는 민주화투쟁의 열풍속에서 《6·25》 군부독재와 포악한 《유신》독재로 역사의 무덤세에 매장되었다.

선행한 파쑈독재 《정권》들의 죄악의 전철을 밟고자 험난한 《실용정권》의 운명도 결코 예외로 될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무엇보다도 역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과 등지고 그들의 저주와 규탄, 타도의 표적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하여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보수 《정권》은 전례없이 악랄한 미국반

통치로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도란에 빠뜨리며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등의 역적행위를 심은죽 먹듯 하고있다. 《정권》은 《한나라당》과 《제거리들이 짜들어 〈국회〉를 완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언론관련법개정안》, 《비정규직법개정안》, 《로조관제법개정안》 등 수많은 반인민적이고 파쑈적인 악법들을 조작해낸 사실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반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는 극악한 시대배국노. 시정배무인 보수집권체제의 주악한 물질을 더욱 어지럽게 드러내보여준다.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에 명품을 걸고 반역으로 살아가는 이런 《정권》이 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텔끝만한 한 자주도도 없고 오로지 외세의 각본에 따라 인형처럼 움직이는 꼬득자들은 《정권》,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거역하는 반동통치집단에 생명력이 있을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들의 파멸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역적파당이 파멸의 운명을 모면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이 《국정철학》으로 들고나온 《실용주의》라는 것도 미국의 것이다. 오직 제국주의 상전에게 잘 보여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대국 행위밖에 있는것이 없는 보수 《정권》이 미국의 남조선강점정책과 정치에 속화정책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정부》는 머지 않아 분노한 인민들의 대중적항거에 부딪쳐 력사의 시공창에 처박하게 될것이다.

엄 일 규

반동통치파들이 날뛴다고 하여 혁사가 거꾸로 흐르는 법은 없다. 《실용》 독재의 광란속에서도 미국과 반역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낡은것이 멀망하고 새것이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남조선전보세력

들의 줄기차고 완강한 투쟁에 의해 반역 《정권》이며 외세와 파쑈국 노가 없는 자주, 민주화로 세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세기적혁명원은 반드시 힘들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정권》은 미국의 주권집단, 하수인 《정권》인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오래

갈수도 없다.

보수 《정권》은 전례없이 악랄한 미국반통치로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도란에 빠뜨리며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등의 역적행위를 심은죽 먹듯 하고있다. 《정권》은 《한나라당》과 《제거리들이 짜들어 〈국회〉를 완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언론관련법개정안》, 《비정규직법개정안》, 《로조관제법개정안》 등 수많은 반인민적이고 파쑈적인 악법들을 조작해낸 사실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반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는 극악한 시대배국노. 시정배무인 보수집권체제의 주악한 물질을 더욱 어지럽게 드러내보여준다.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에 명품을 걸고 반역으로 살아가는 이런 《정권》이 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텔끝만한 한 자주도도 없고 오로지 외세의 각본에 따라 인형처럼 움직이는 꼬득자들은 《정권》,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거역하는 반동통치집단에 생명력이 있을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들의 파멸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역적파당이 파멸의 운명을 모면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이 《국정철학》으로 들고나온 《실용주의》라는 것도 미국의 것이다. 오직 제국주의 상전에게 잘 보여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대국 행위밖에 있는것이 없는 보수 《정권》이 미국의 남조선강점정책과 정치에 속화정책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정부》는 머지 않아

분노한 인민들의 대중적항거에 부딪쳐 력사의 시공창에 처박하게 될것이다.

엄 일 규

남조선전보세력들은 전례없이 악랄한 미국반통치로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도란에 빠뜨리며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등의 역적행위를 심은죽 먹듯 하고있다. 《정권》은 《한나라당》과 《제거리들이 짜들어 〈국회〉를 완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언론관련법개정안》, 《비정규직법개정안》, 《로조관제법개정안》 등 수많은 반인민적이고 파쑈적인 악법들을 조작해낸 사실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반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는 극악한 시대배국노. 시정배무인 보수집권체제의 주악한 물질을 더욱 어지럽게 드러내보여준다.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에 명품을 걸고 반역으로 살아가는 이런 《정권》이 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텔끝만한 한 자주도도 없고 오로지 외세의 각본에 따라 인형처럼 움직이는 꼬득자들은 《정권》,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거역하는 반동통치집단에 생명력이 있을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들의 파멸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역적파당이 파멸의 운명을 모면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이 《국정철학》으로 들고나온 《실용주의》라는 것도 미국의 것이다. 오직 제국주의 상전에게 잘 보여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대국 행위밖에 있는것이 없는 보수 《정권》이 미국의 남조선강점정책과 정치에 속화정책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정부》는 머지 않아

분노한 인민들의 대중적항거에 부딪쳐 력사의 시공창에 처박하게 될것이다.

엄 일 규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피뢰보수당은 당시의 비렬한 양념에 엉겁고 민족을 반역하는 국제적전쟁을 이루기 위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는 역적파들이 파멸당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반동통치파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4·3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원민봉기, 비롯한 대중적투쟁으로 대처한 민족의 힘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대명사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는 현시기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인류의 지향이고 목표다. 인류의 지향은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도전에 부딪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세계 평화보장』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들은 세계도처에서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것처럼 부산을 피우면서 저들이 미치도록 국제평화와 안전을 『온·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너스레를 떨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자신을 『평화의 사도』로 묘사하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고 지배주의적 목적을 숨기기 달성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세계 평화에 호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위장평화술에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그를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현시기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를 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평화의 악랄한 원수이며 력사방전의 주되는 장애물이다. 침략과 전쟁, 침략과 학살을 떠난 제국주의의 한 있을 수 없다.

침략과 학살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침략과 학살을 포기한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침략자인 제국주의는 력사에 있어 본적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덕분』으로 독립을 행위하거나 번영을 이룬 나라와 민족은 없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

에 대한 침략과 학살로 살찌고 『발의 마취제와 같다.』 자본주의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을 자국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학습과 억압과 함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학살을 악랄하게 감행하여 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종식 후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파국적인 전쟁들이 모두에게 실증해 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평화보장』은 침략과 전쟁, 간접의 대명사이다. 그들은 『평화보장』의 간접판례로 침략전쟁과 무력간섭을 감행하면서 세계평화를 퍼뜨리고자 하는 행위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린 결과에 차에 진 것은 민족증언이 짖밟히고 사회적 혼란과 경제파란, 인민생활의 평화뿐이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졌다가 자기의 운명을 망쳤다는 개탄의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역사적 사실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배제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강경하게 싸울 때 자기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인류의 자유업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타령은 위기의 산물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 심각한 모순에 처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침체가 심각해지고 인민들의 반전운동이 양양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도 고립과 격차를 겪고 있다. 그들은 이로부터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최근 1년간 『평화』에 대하여 더욱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평화』의 간판을 내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그들은 『평화』와 『군축』의 기만

적인 간판밑에 군비증강과 군사장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군축』은 곧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이 『군축』 광고를 오락하게 하면 활수록 그에 깔린 그들의 위험한 범죄적 기도에 경각심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 때면 그뒤에는 언제나 침략과 전쟁이 따른다는 것은 력사적 사실이 실증해 주고 있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가짜 평화에 속아넘어가 그들의 침략수법의 변화를 침략적 본성의 변화로 잘못 보고 반제반통장을 악화시키거나 포기한다면 과국적인 후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 하면서 반제반통장을 그만두면 그들의 오만성을 더 조장시켜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의 회생률로 몰려들게 될 수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반대하는데 투쟁의 창을 점지시킴으로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없애고 그들과 함께 맞서 나가야 한다.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지 않고서는 간악한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이 헌전된 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일삼고 있는 조건에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제국주의자들이 최근 1년간 『평화』에 대하여 더욱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평화』의 간판을 내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리현도

《김정숙도서관》

루에설립

『김정숙도서관』이 빠루에 설립되었다.

『김정숙도서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작자들,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들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비치되었다.

개판식이 13일 빠루인민네성동맹청사에서 진행되었다.

개판식에는 빠루인민네성동

맹지도부성원들, 각계 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빠루인민네성동맹총서기 루

프란체스카나에 개판식에서 한 연

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도서관의 명칭인 김정숙녀의 존을 보신 것은 빠루의 모든

녀성들이 조선혁명과 너성운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백두의 너장군을 따라해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김정숙녀의 가장 큰 공적

은 김정일각하를 조선혁명의

출현한 영도자로 안아키우시여

조선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

신것이다.

『김정숙도서관』은 민주주

의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한 빠

루인민네성동맹의 활동과 빠루

녀성들의 의식화에 적극 기여

할 것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김정숙도서관』을 돌아보았다.

개판식에는 『김정숙도서관』을

제작된 『김정숙도서관』을

<p